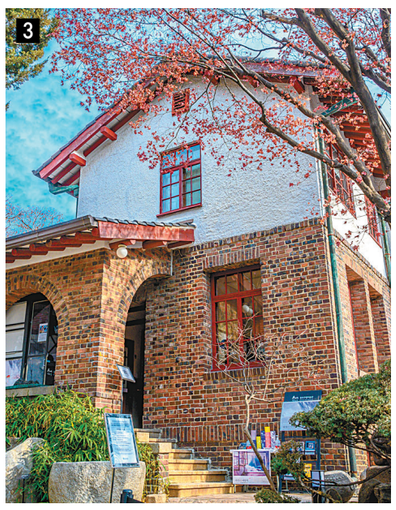
무심코 지나쳤던 명소…'몰랐던 서울'의 재발견

'해설사 동행' 무료 관광 프로 운영
거리두기로 한 명만 신청해도 'OK'
경복궁·창덕궁·서촌 골목 등 탐방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볼거리 가득



설연휴 서울 도심에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즈넉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 1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부터 3년 만에 일반에 공개한 경복궁 향원정. 2 서울의 다섯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3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서촌 코스의 박노수 미술관. 서구식 건물처럼 보이지만 한옥 양식을 절충한 건물이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올해도 설은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명절연휴 나들이가 조심스럽다. 아예 집에 머물며 설연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시내 명소를 돌아보는 도보투어는 어떨까. 마침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설 연휴에 당일이나 반나절 일정으로 떠나기 좋은 서울 도보해설관광 코스 4곳을 추천했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서울 명소를 탐방하는 무료관광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예약이 3인 이상이어야 출발 확정이 됐지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최근 한 명만 신청해도 해설사가 배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코스1: 작년 가장 이용객 많았던 경복궁

투어는 흥례문을 지나 금천교부터 시작된다. 금천교를 지나면 근정문 지나 근정전이 나온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은 오른쪽 끝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근정전의 처마가 살짝 들려 있어 좌측으로 인왕산, 우측으로는 북악산의 능선이 하나처럼 이어진다.

근정전 뒤편 사정전은 왕이 실제 업무를 보던 정무 공간이다. 사정전 왼쪽으로 가면 경회루가 나타난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다. 경복궁 코스와 함께 경복궁 북측의 향원정도 함께 돌아보면 좋다. 3년에 걸친 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일반에 공개됐다.(설 연휴 정상운영, 2월3일 휴무, 투어시간 10:30, 14:30)

●코스2: 세계 문화유산 창덕궁

서울의 다섯 개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금천교를 통해 궁궐 안으로 들어간다. 창덕궁의 금천교는 1405년 창건 당시 모습이 남은 오래된 건축물이다. 창덕궁의 편전인 선정전은 왕이 집무를 보던 곳으로 조선 후기에 정조 순조 철종 등의 위패를 모시면서 입구가 지붕으로 바뀌었다.

희정당 앞에 지붕이 튀어나온 공간은 순종 황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주차하던 공간이다. 낙선재는 궁궐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단청을 하지 않은 독특한 건물이다.(설 연휴 정상운영, 2월3일 휴무/투어시간 10:00, 14:00)

●코스3: 서촌의 오래된 골목 산책

서촌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오밀조밀한 골목길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네이다.

경복궁 3번 출구에서 출발한 투어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통의동 백송은 1990년 여름 태풍으로 쓰러져 고사한 나무의 씨앗을 받아 주변에 심어 서촌의 역사를 잇고 있다. 서촌 코스 중 하이라이트는 수성동 계곡이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유명해 붙여진 이름이다. 겸재 정선도 수성동 계곡을 그렸다. 수성동 계곡을 나오면 박노수미술관이 있다. 서양식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한옥 양식을 절충한 건물이다. 마지막 코스인 이상의 집은 소설 '날개'로 알려진 소설가 이상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장소이다.(1월31일 휴무/투어시간 10:00, 14:00)

●코스4: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을 테마로 하여 조성된 정원과 산책로를 걸으며 각종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다 석탑 정원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석탑, 석등, 석불 등 석조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다. 갈항사 동서 삼층석탑은 국보로 신라 석가탑의 계보를 잇는 문화재다. 보물로 지정된 고달사 쌍사자 석등은 두 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 석등의 미를 살렸다.

석탑 정원을 벗어나면 보신각종이 나온다. 종각에서 매년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종의 진짜 종이다.

실제 종이 노후화 되어 1985년에 새롭게 만들어 보신각에 걸고 본래 종은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으로 옮겨서 보존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키즈룸부터 물놀이장까지…호텔가 "동심 잡아라"

연휴 대목 앞두고 가족고객 유치 경쟁

호텔들의 호캉스 상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연휴 가족고객들의 발길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키즈'가 떠오르고 있다.

우선 룸에서 가족끼리 즐기는 실내 액티비티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남산 반얀트리서울의 '키즈 플레이케이션' 패키지는 아이와 도심 속 휴가를 떠난다는 테마로 기획했다.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 세안제 및 목욕 용품과 아이들의 놀이용 피규어 장난감을 증정한다.

아이와 도심속 휴가를 즐긴다는 테마로 객실 액티비티 용품을 갖춘 반얀트리 서울 '키즈 플레이케이션' 패키지. 사진 | 반얀트리 서울

릴랙세이션 풀이 있는 객실을 선택하면 온 가족이 프라이빗하게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선착순 50실 한정이다.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의 '플레이띵즈'는 키즈 플레이룸을 제공한다. 역시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패키지 구매 시 유명 유아 교구사인 미국 레이크쇼어와 덴마크 곤지의 용품이 있는 스위트룸을 4시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 플라자는 어린이 중장비 장난감 브랜드 '스탠리 주니어'와 협업한 키즈 라운지 패키지도 판매한다.

객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로 꾸민 콘셉트룸도 붐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은 '프린세스 미미' 패키지를 내놓았다. 레지던스 디럭스 객실을 '미미월드''와 협업해 공주풍의 콘셉트룸으로 꾸몄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로보카폴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구조대의 리더인 경찰차 폴리룸과 응급처치를 하는 앰뷸런스 엠버룸으로 객실을 꾸몄다. 폴리 및 엠버의 쇼핑카트와 소꿉놀이로 구성된 '매직 쇼핑카트'를 제공한다.

이밖에 글래드 호텔은 영화 '씽2게더'의 테마로 객실을 꾸민 '글래드 2게더'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서울 지역 3개의 글래드 호텔(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예약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여드름 흉터 자연치유 어려워 개인 맞춤형 피부과 치료 필요

여드름은 피부 속에서 과다 분비된 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을 막아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여드름은 20대 중반 이후부터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래에는 여드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인들도 많아졌다. 여드름 염증의 결과로 인해 생성되는 여드름 흉터는 피부 조직이 이미 고착화된 상태로 자연치유가 어렵다. 단순한 홈케어를 통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여드름은 크게 붉은 자국, 색소 침착, 패인 흉터를 남길 수 있다. 붉은 자국은 대부분 혈관 레이저로 불리는 장비로 치료가 가능하다. 색소 침착은 색소 레이저, 보통 토닝레이저라 알려진 장비들로 치료를 한다.

패인 흉터는 단순히 레이저의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보다 개인 맞춤형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패인 흉터의 치료는 각종 프랙셔널 레이저를 비롯해 미세바늘 고주파, 서브시전, 쇨더링 등이 있다. 레이저를 잘게 쪼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프랙셔널 레이저의 목표는 콜라겐 형성 유도에 있다. 이 밖에 콜라겐 생성 주사와 흉터 필러, TCA(화학적 박피), PDRN, PN(리쥬란) 등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드름 흉터는 한 두 번의 치료로 드라마틱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반복 치료가 필수적이다.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의료진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상담을 거쳐 1대1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트리에 피부과 **신동윤** 대표원장

문체부, 카지노산업 지원 민관협의체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전국 17개 카지노사업장의 영업 매출액은 2019년도 대비 59.7% 감소했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년도에 이어 현재까지도 휴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카지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카지노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관한 지원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완화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통해 카지노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첫 회의에서 중점 논의했다. 2차 회의부터는 사업자들도 참여해 함께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8일 (금) 음력: 12월 2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상대방과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문명이 과도하게 발전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천천히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는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의 날씨 28일(금)

서울 10/10	-6 2	인천 10/10	-5 1
춘천 0/0	-10 3	강릉 0/0	-2 7
대전 20/20	-6 5	전주 10/20	-4 4
광주 10/20	-2 5	대구 20/20	-4 7
부산 10//10	0 9	창원 10/10	-2 8
제주 30/30	4 7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5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